

비상경제장관회의

22-1

(공개)

#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

-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-

2022. 11. 1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순 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최근 수출동향 및 전망 .....      | 1  |
| II.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..... | 2  |
| III. 5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.....  | 5  |
| 1. 주력산업 .....              | 5  |
| 2. 해외건설 .....              | 12 |
| 3. 중소·벤처기업 .....           | 16 |
| 4. 관광·콘텐츠 .....            | 21 |
| 5. 디지털·바이오·우주 .....        | 26 |
| IV. 세부 추진일정 .....          | 33 |

## I.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

□ (동향) '22.1/4분기 이후 **회복세 약화** → 10월 **감소(-) 전환**

- 수출은 '20.11월 이후 반도체 등 중심으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으나, '22.10월 2년만에 마이너스 전환

\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0)△5.5 ('21)25.7 ('22.1/4)18.4 (2/4)13.0 (3/4)6.0 (10)△5.7

↳ 일평균 수출(억불): ('21.3/4)24.0 (4/4)25.4 ('22.1/4)26.7 (2/4)25.9 (3/4)25.3 (10)24.4

- 최근 수출흐름 약화는 글로벌 수출수요 감소에 따른 반도체·철강 등 우리 주력품목 업황 부진에 기인(단, 자동차 수출은 호조)

▶ (반도체) 글로벌 IT수요 둔화로 인한 메모리 단가 하락 영향

\* D램 단가(\$): ('22.1~4)3.41 (5~6)3.35 (7)2.88 (8~9)2.85 (10)2.21 <전년동월비 △40.4%>

▶ (철강) 포항 태풍 피해로 인한 생산차질 및 철강재 단가 하락 영향

\* 철강제품 수출금액(% , 전년동기비): ('22.7)+4.7 (8)+2.5 (9)△21.1 (10)△20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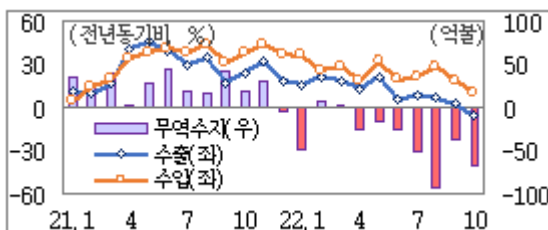
수출단가(% , 전년동기비): +9.7 △3.6 △15.0 △14.3<sup>e</sup>

▶ (자동차)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며 전기차 등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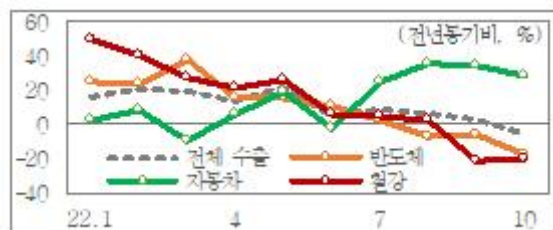
-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高에너지가격 영향으로 에너지수입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적자 지속

\* 무역수지(억불): ('22.4)△24 (5)△16 (6)△25 (7)△50 (8)△94 (9)△38 (10)△67 <연 누적 △356억불>

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



품목별 수출 증감률



□ (전망) **글로벌 경기둔화**와 그에 따른 **IT경기 하강** 등을 감안 시 이른 시일 내 **수출 증가세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**

- 美·EU 등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\*, IT수요 약세, 경제분절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이 수출회복을 제약할 우려

\*'22.9월 OECD 경기선행지수(100이하=장기추세 하회): [美]98.5 [中]98.5 [EU]98.3

## Ⅱ.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

◇ 10.27(목)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**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방안** 선제적 집중 논의 → **5대 분야 핵심과제** 즉시 추진

□ (목표) 5대 분야 수출동력 확보 → 위기 속 **재도약 기회** 창출

### 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

- 수출은 과거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위기극복의 버팀목
-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적극 육성

### ② 세계 선도분야 + 유망 신산업분야 → 5대 분야 집중 육성

#### ▪ (주력산업)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 확보

- ▶ 반도체 1조원 재정지원('22.12),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('22.12)
- ▶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('22.12),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(11.1) 등

#### ▪ (해외건설) 年 500억불 수주, 세계 4대 강국 달성

- ▶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, 11월 첫 출정('22.11),
- ▶ 해외건설·원전·방산·ICT 등 패키지 진출 추진('22.12~) 등

#### ▪ (중소·벤처) 중소·벤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

- ▶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('22.11),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('22.12)
- ▶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(~12월) 등

#### ▪ (관광·콘텐츠)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세계 선도산업 도약

- ▶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'25년까지 연장('22.12)
- ▶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('23.3), 콘텐츠 인력 1만명 양성('23.上~) 등

#### ▪ (디지털·바이오·우주)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

- ▶ (가칭)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('22.12), 초·중·고 디지털 교육 강화('22.12)
- ▶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('22.11),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('22.12) 등

□ (추진) **민관합동 협의체 + 수출투자지원반** 운영 → 민간주도 + 정부지원

① 5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·운영

- 이달 중 부문별 주관부처\*가 각각 민관합동 협의체 출범  
→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

\* ① 주력산업 : 산업부, ② 해외건설 : 국토부, ③ 중소·벤처 : 중기부,  
④ 관광·콘텐츠 : 문체부, ⑤ 디지털·바이오·우주 : 과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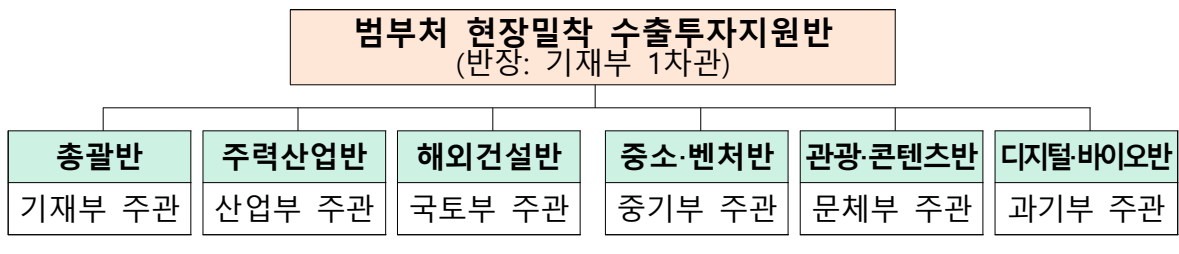
- 정부, 유관기관,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

②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 운영

- 이달 중 부처합동 수출투자지원반을 구성하고 기업현장 방문,  
정부-기업간 Hot-line 구축 → 수출애로해소, 투자수요 발굴 등 추진

<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 구성(안) >

※ 기재부 1차관(반장), 관계부처 1급, 민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



□ (점검) **비상경제장관회의 + 민관합동 현장점검** → 추진동력 확보

① 비상경제장관회의 통해 추진·점검

- 과제별 추진계획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·발표  
(대부분 과제 연내 추진)
-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 면밀히 점검

② 민관합동 현장점검

- 관계부처 장·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분야별 산업현장을  
직접 방문하여 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

☞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 **수출동력이 최대한 활성화**될 수 있도록  
**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결집**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

목표

위기 속 **재도약 기회 창출**을 위한 **신성장 수출동력 확보**

5  
대  
분  
야  
추  
진  
계  
획

주 력 산 업

- ✓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
- ✓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
- ✓ 반도체 1조원 재정지원

해 외 건 설

- ✓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첫 출정
- ✓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추진
- ✓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 기한연장

관 광 · 콘 텐 츠

- ✓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원 결성
- ✓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 완화
- ✓ 전자여행허가제 개선

디지털 · 바이오 · 우주

- ✓ (가칭)인공지능 초일류 전략
- ✓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
- ✓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

중 소 · 벤 처 기 업

- ✓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
- ✓ 50조원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
- ✓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
- ✓ 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
- ✓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
- ✓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천명 육성

추진  
체계

비상경제장관회의

민 · 관 합 동 협 의 체

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

### Ⅲ. 5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

#### (1) 주력산업

##### 1 현황

#### □ 우리 주력산업의 활력은 점차 둔화

- (투자) 제조업 설비투자는 '17년 이후 100조원 수준으로 정체
  - \* 제조업 설비투자액(조원, 산업연) : ('17) 106, ('18) 94, ('19) 89, ('20) 90, ('21) 100
  - 올해 상반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비 감소, 3분기 약간 반등
    - \* 설비투자 전년비 증감률(% 한은 속보치) : ('21.4Q) 4.1, ('22.1Q) △6.0, (2Q) △7.9, (3Q) 1.3
  - 회사채, CP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
    - \* 회사채(3년 AA, %) : ('21) 2.41, ('22.8) 4.66, (9) 5.28 / CP(A1, 91일 %) : ('21) 1.56, ('22.8) 3.09, (9) 3.30
- (생산) 8월 제조업 생산능력은 3개월 연속 하락, 2월 이후 최저치
  - \* 생산능력지수(통계청) : ('21.12) 106, ('22.2) 105.1, (6) 105.7, (7) 105.6, (8) 105.1
- (수출) 6월 이후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둔화, 10월 마이너스 기록
  - \* 전년비 수출 증감률(% 산업부) : ('22.1) 15.5, (4) 12.9, (7) 8.7, (8) 6.6, (9) 2.8, (10) △5.7

#### □ 주요 업종별로는 시장여건이 상이

- (반도체·철강·油化)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'22년 하반기~'23년까지 어려운 업황 예상
  - 특히, 반도체는 평년대비 재고가 2배 이상 누적된 상황
- (자동차·배터리·조선) 반도체 공급개선과 전기차 수요 확대로 자동차·배터리 수요 증가, 조선은 '21년 수주회복\*으로 성장 기대
  - \* '21년에는 8년만에 최대 수주실적 달성, '22년 현재 LNG운반선 발주량의 3/4 수주
  - 전세계적인 친환경·디지털 전환 추세에 힘입어 지속 성장 전망

◇ **소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·금융·인력 등 산업체질 개선과 시장여건 및 산업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 필요**

⇒ 반도체, 자동차 등 **주요업종 투자 계획**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

## 1. 반도체

## □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[산업부]

① (조성목적)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·소부장 M&A 투자 지원

② (조성규모) 총 3,000억원('23.上, 소부장 2,000억원 + M&A 1,000억원)

\* 재원 : 반도체기업 및 정책금융 등 50% + 민간 금융권 50% 추진

## □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[국토부·산업부]

① (수요조사)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산단 개발 수요조사(10~11월)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검토

② (후보선정)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(12월말)

## □ 반도체 팹리스 육성 [산업부·중기부]

① (성장지원) 창업기업 및 中企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, 시제품 제작, 설계 SW·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 추가 구축\*

\* '23년 제2판교에 1,000평 규모 시스템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(사무공간, 설계장비 지원 등)

② (상생협력) 국내 모든 파운드리 및 중소 팹리스업체\*가 참여하는 “팹리스 - 파운드리 상생협의회”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 발굴

\* 삼성전자, DB하이텍, SK하이닉스, 키파운드리 / 한국팹리스산업협회

③ (기술개발) 전력반도체(4,500억원), 車반도체(5,000억원) 대규모 예타 추진 및 수요 대기업·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&D\* 신규 도입

\* 신시장창출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개발 ('23년안 100억원)

④ (자금지원)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·R&D·용자 패키지 지원 (→우수혁신기업은 후속 스케일업\* 추진), 초격차 분야 펀드\*\* 신설('23)

\* 일부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검증 및 시제품 등 지원(2년간 최대 10억원)

\*\* 例 : 과학기술(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SMR, 수소 등), 디지털(반도체, AI), 바이오 등

⑤ (인력양성) 中企 계약학과·기술사관 확대 및 채용박람회 개최(11월)

\* ▲계약학과 : ('23) 3개 추가, ▲기술사관 : ('23) 2개 추가

## □ 반도체 1조원 재정지원 [기재부]

- ① (인력양성) 특성화학과 확대,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1.5 → 2.6만명으로 확대(0.18→0.45조원)
- ② (R&D) 차세대 반도체(AI, PIM, 전력 등), 패키징,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&D 지원 확대(0.34→0.39조원)
- ③ (인프라·사업화) 패키징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·IP·설계 등 사업화 지원(0.13→0.17조원)

## □ 반도체 등 주력산업 세제지원 확대 [기재부]

- ① (국가전략기술)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(+2%p)하고,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 확대  
\*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: [현행] (대) 6~10% (중견) 8~12% (중소) 16~20%  
[변경] (대·중견) 8~12% (중소) 16~20%
- ② (산학연계)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% 세액공제를 적용하고,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\* 대상에 포함  
\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인력개발비로 인정 : (대) 최대 2%, (중견) 8%, (중소) 25% 공제
- ③ (인력유치) 외국인 기술자\*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\*\*이 국내 기업·연구소 취직시 소득세 50% 감면을 5년→10년으로 확대  
\* 외투기업 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/ \*\* 해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취업 연구자

## 2. 이차전지

## □ 핵심광물 확보방안 [산업부]

- ① (수입다변화) 호주, 캐나다, 인니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 확대  
- 장기공급계약 체결,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 지원  
- 정부의 순방·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적극적인 협력 추진
- ② (비축확대) 종합비축계획 수립('22.末), 핵심광물 비축량 확대 (現 60일→100일분)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

## □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 [기재부]

① (공급망기본법)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체계 제도화를 위해 조속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

- '공급망안정화위원회'를 설치하여 공급망 정책 유기적 연계
- 위험포착 → 위험예방 → 위기대응의 체계적·주기별 위험관리

- (위험포착)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(EWS) 결과 연계, 위험 징후시 공동 점검·조기 안정화
- (위험예방) 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 지정, 안정화 선도사업자(기업, 협단체 등) 지원근거 마련
- (위기대응) 위기 발생 시 위기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운영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 가동

② (공급망안정화기금)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의 안정화 노력(수입선다변화, 기술개발 등)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금\* 마련

\*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고, 경제안보 품목 확보, 수입선 다변화,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, 비축확대 등을 위해 대출, 자산매수, 채무보증, 출자 등 수행

## □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수립·발표 [산업부]

① (공급망 안정)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마련

② (기술 초격차)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,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&D에 '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

③ (생태계 육성)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·세제, 규제개선 등 전방위 지원, 인력양성 및 강소 소재기업 육성 등

⇒ 핵심과제 이행·관리를 위해 「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」 출범

## 3. 조선

## □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[고용부]

① (근로시간)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90일→180일로 한시 확대(10.19일)

-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추가요건 부여\* 및 현장지도 강화

\* (現) 개별근로자 동의 + 건강보호조치 계획

→ (改)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+ 인력채용, 설비확충 등 향후 대책안 의무 제출

**② (외국인력) 비전문 외국인력(E-9) 도입규모를 '22년 6.9만명에서 '23년 11만명으로 약 60% 확대**

\*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(10.25일) → 11~12월중 고용허가서 신청  
→ '23년초부터 필요인력 신속 입국 예정

**□ 조선업 금융지원 [금융위·산업부]**

**① (RG 적기발급) 정책금융기관, 민간은행들이 적극 협력하여 조선사에 대한 RG 추가발급을 적극 추진**

\* 조선업 업황, 환율 상승, RG 수요 확대 등을 감안

- 중형조선사에는 올해 수주물량에 대한 RG 추가발급 지원중
- 대형조선사(삼성중공업,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)에 대해서는 8개 금융기관 합의를 통해 RG 추가발급 분담액 마련중

**② (RG 특례보증) 중소·중견조선사 수주 지원을 위해 총 1,200억원 규모의 RG 특례보증 운영중(무보, '22.10월까지 264억원 공급)**

**4. 원전**

**□ 한국형 원전 유럽진출 [산업부]**

- ① (전략수립)** 민관합동 「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」를 통해 수출 대상국별 방산, 건설·인프라, IT 등 맞춤형 수출전략 마련
- ② (역량결집)**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 총결집, 세일즈 강화
- ③ (협력강화)** 한국-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韓(산업부)-폴(국유재산부)간 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(LOI) 체결(10.31일)

**□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[산업부]**

- ① (생태계 복원)**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, 금융, R&D 지원
- ② (원전 건설)** 신한울 1호기를 차질없이 연내 준공하고, 신한울 3·4호기는 '24년 착공 목표로 조속 건설재개
  - 원전 발전 비중을 '30년 30% 이상으로 확대

## 5. 방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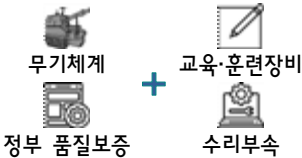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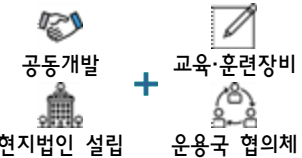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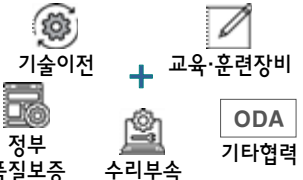
### □ 방산 수출지원 강화 [국방부·산업부]

- ① (컨트롤타워)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·정치·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'방위산업발전협의회' 확대 개최

\* 국방부-산업부 장관 공동위원장, 국방·산업·기재·과기·외교부 등 실장급 참석

- 국방부 內 방산수출 전담조직 신설(방위산업수출기획과, 10.31일)

- ② (수출전략)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구현하도록 부처 및 각 軍간 협업을 통해 '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(안)' 제공

| 방산협력 패키지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① 완제품 패키지</p>  <p>무기체계 + 교육·훈련장비<br/>정부 품질보증 + 수리부속</p> | <p>② 공동개발형 패키지</p>  <p>공동개발 + 교육·훈련장비<br/>현지법인 설립 + 운용국 협의체</p> | <p>③ 기술이전형 패키지</p>  <p>기술이전 + 교육·훈련장비<br/>정부 품질보증 + 수리부속<br/>ODA<br/>기타협력</p> |

## 6. 에너지

### □ 에너지 수요효율화 적극적 추진 [산업부]

- ① (효율제고) 공공·산업·가정 등 전부분의 수요효율화 집중 이행

-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('22.10.18~'23.3.31) 실행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 등 'KEEP 30' 이행 철저

- 연간 2,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(3,646개)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감 협조 요청(11.1, 공문발송)

\* '22.11~'23.3월까지 에너지 사용계획 및 절감방안 제출 요청

- 전기 에너지캐쉬백 신규 가입절차 개시(10.31) 및 가정용 도시가스 부문 신설(12월 시행 예정)

- ② (세제지원) 민간의 효율혁신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

- '23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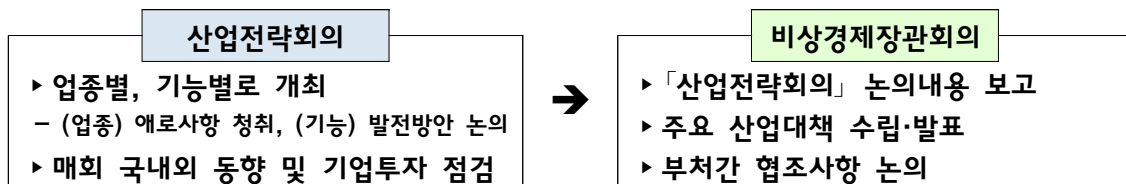
\* 조특법 개정안 발의(10.11, 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- LNG·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\*으로 난방비용 부담 완화

\* (LNG) 할당관세(0%) 기간 3개월 연장(~'23.3) / (LPG) 동절기 할당세율 인하(2→0%, ~'23.3)

### □ 민·관 합동 추진체계 구성

- 산업전략 논의 및 세부과제 이행점검 등을 위한 추진체제로  
민관합동 「산업전략회의\*」(長 : 산업부장관) 개최
  - \* 현재 경제단체와 진행중인 「산업대전환 포럼」內 「산업전략회의」를 포함하여 운영  
→ 주력산업 분야 후속조치 점검 + 새로운 산업전략 발굴
- 관계부처(실장급), 경제단체, 산·학·연 전문가 등 10~20명으로 구성
- 실물경제 동향 + 기업투자 점검 + 신성장전략 발굴 등 논의
- 정책 공급자-수요자간 공감대 형성 및 공동목표 설정을 통해  
범국가적인 산업전략 수립·추진



### □ 주력산업 수출투자지원반 가동

- 10대 주력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이행 지원
  - ①투자발굴, ②제도개선, ③자금조달, ④수출촉진 등 기업투자의  
“계획(기획)→실행(제도·금융)→성과(수출)” 3단계 맞춤형 지원
- 「주력산업 수출투자지원반」 및 4개 대응반 구성
  - \* 구성(안) : (기획반 : 산업부) 총괄, 투자 프로젝트 발굴, (제도반 : 기재부) 규제·제도개선,  
(금융반 : 금융위) 금융애로 해소, 고금리 대응, (수출반 : 산업부) 수출입애로 점검
  - 총반장은 산업부 1급(산업정책실장)이 되고, 부처별 역할·전문성을  
고려하여 관계부처 국·과장급 공무원을 대응반별 반장으로 지정
  - 대한상의에 투자애로를 상시 청취하는 Hot-line 조직 신설  
(애로청취→각 대응반 전달)

## [2] 해외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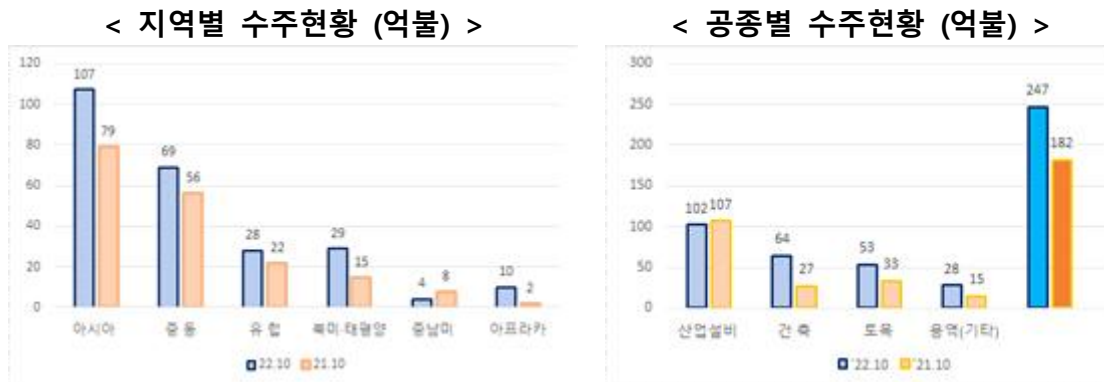
### 1 현황 및 전망

□ (현황) 10.31일 기준, 수주액은 **247억불** (전년 동기대비 36% ↑)

○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수주목표 300억불 대비 82%로 견조

- 불확실한 글로벌 경기와 팬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, 적극적인 수주 노력으로 양호한 수주성과 창출

\* 연도별 실적(억불): ('18) 321 → ('19) 223 → ('20) 351 → ('21) 306 → ('22.10.31) 247 (전년동기182)



○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강세이며(43%), 중동지역(28%)도 사우디 네옴 터널(12억불) 등 대형 인프라사업 견실히 수주 중

\* (지역별) 아시아 43.3%(107.1억불), 중동 27.9%(69.1억불), 북미 등 11.6%(28.7억불)

\*\* (공종별) 산업설비(41%) 우세, 건축(26%)·토목(21%)은 균형 수주 경향

□ (전망) 금년 수주액은 **300억불 내외** 예상

<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(10.27) 중 해외건설 활성화 관련 논의 >

- (국토부) ①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 11월 첫 출정
- ②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확대
- ③ICT·문화·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 전략 필요
- (고용부) ④주52시간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 완화 추진
- (기재부) ⑤해외건설 금융지원 대폭 확대

## 2

## 추진과제

## □ 「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」 11월 첫 출정 [국토부]

- ① (협력체계 마련)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,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강화
- ② (기업역량 홍보)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하여 우리 건설기술·IT·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'원팀 코리아' 홍보

| 구분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발표 | ▶ 로드쇼 개막식 행사 시 건설 인프라, IT, 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역량 홍보               |
| 상담회  | ▶ 사우디 정부기관, 주요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1:1상담회를 개최하여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|

- ③ (수주 지원) 네옴시티(5,000억불 규모)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 방문,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 지원

## □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출 전환 [국토부]

- ① (PPP 진출확대) PPP사업 기획·발굴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  
(‘22, 130억원), 펀드운영 및 KIND 지분투자 통해 안정적 민간진출 지원\*
- ② (설계·기획) 기업이 관련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PM\* 시범사업 추진  
(‘22, 4건), 3D 설계 시스템\*\*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

\* Project Management : 건설全过程(기획·설계·조달·시공·감리 등) 또는 일부를 관리

\*\* 3D 디지털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운영 등 전과정 디지털화

□ ICT·문화·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추진 [국토부]

① (필요성) 발주되는 주요사업별로 최적의 “원팀 코리아”를 구성하여 ICT·문화·에너지 등 연계한 패키지 진출전략\* 수립 필요

\* (예시) 스마트시티 내 5G 통신, 드론·로봇 스마트물류, 신재생에너지 등 포함

- 또한, 정보 부족, 금융조달 곤란, 진출국 정부-우리기업 협의부족 등으로 수주에 실패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팀코리아 구성·지원

\* 현재 팀코리아는 체계적 선정·지원절차 없이 민간 또는 공기업 요청으로 수시 구성 중

② (추진방안) 국토장관 단장으로 관계부처·공기업·민간이 참여하는 “해외건설 수주지원단” 구성, 전략 합동 수립(~'22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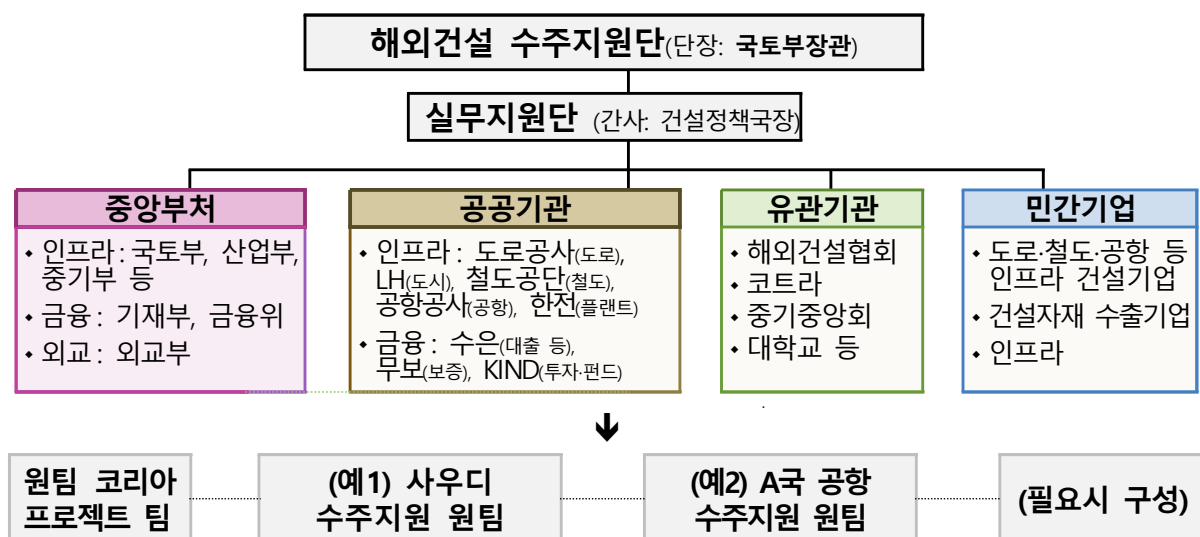
- (역할) 민·관합동으로 ‘우리기업이 수주할 주요 프로젝트’를 선정, 팀코리아 구성방안과 외교·금융 지원방안 등 사업공략 전략 수립

\* 기재부 1차관 주재 해외수주협의회는 해외수주 동향 공유 및 전반적 수주전략 수립

- (운영) 분기별로 회의 개최하여 기존 팀코리아 추진상황 점검\*,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팀코리아 구성·운영방향 마련

\* 진출국·발주처와의 협의 상황, 금융조달 여건, 수주외교 필요시기 등 종합 점검

<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(안) >



## □ 주52시간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 완화 추진 [고용부]

-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'특별연장근로제' 활용기한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연장(고용부 지침 개정)
  - \* 특별 사유 인정 시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

## □ 해외건설 금융지원 대폭 확대 [기재부·금융위]

- ① (공공금융 강화) 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'25년까지 총 500억불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(F/A)\* 체결 확대 등 정책금융 확대
  - \* 금융지원 한도, 절차 등 금융지원조건을 사전에 확정하여, 인프라 수주 등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
- ② (민간금융 활성화)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민·관 금융협의체 구성·운영
  -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\*으로 국내 금융기관(민·관 공통)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추진 등
  - \* 현행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

## 3 추진계획

- 사우디 수주지원(11.4~11.9) 이후 고위급 면담 후속조치, 그 밖에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수주지원단 파견('23~)
-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안 마련(11월), 구성·역할·기능 및 실무조직 등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(12월 초)
  - 지원단 구성 확정 후 금년 수주실적 점검 및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 발표를 계기로 출범식 및 1차회의 개최 추진(12월 말)
- 수은 기본여신약정 체결 확대(~'25), 대부업법 개정 추진('23)

### [3] 중소·벤처기업

#### 1 현황

##### □ (위기) 코로나19 충격에 이어 3高(고금리·고물가·고환율) 복합위기 직면

- 시중은행 평균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.7%\*('22.3Q)로 '18년 이후 최고치이며, 올해 자금사정 전망\*\*도 악화 추세

\* 시중은행 평균 중소기업 대출금리(한은):('22.1Q) 3.56 → ('22.2Q) 3.84 → ('22.3Q) 4.65

\*\* 中企 자금사정(전망, 중앙회):('21.12) 82.0 → ('22.6) 82.1 → ('22.8) 78.2

-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47.6% 상승했음에도 납품대금 상승률은 10.2%에 그쳐, 중기 영업이익률이 약 33% 감소(7.0→4.7%, △23%p)

- 아울러, 주 52시간, 외국인력 부족 등 현장 인력애로도 가중

\* '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약 60만명에 달하며, 외국인력 입국 규모 감소 등으로 인력부족률(3.9%)이 대기업(1.7%)에 비해 2.3배 높은 상황

##### □ (기회)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 시작, 세계 최고 디지털 인프라와 혁신 벤처·스타트업으로 '혁신'과 '일자리 창출' 가능

- 세계 최초 5G 상용화('19), 스마트폰 이용률 97%('22) 등 최고 수준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·산업 전반의 디지털化 필요

- CES 혁신상 74개사('22), 유니콘 기업 23개사('22)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혁신 벤처·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을 견인함과 동시에 청년,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\*에도 크게 기여

\* '20년에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들(24.2만명, 633개사)은 삼성그룹(26.1만명)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음

◆ 3高 위기를 극복하고, 혁신 벤처·스타트업을 신성장동력化  
⇒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시대 '선도국'의 지위로 부상

## 1.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

□ 「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」 추진 [중기부, '22.11월]

- ① (10대 초격차 분야 선정)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·생태계,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 선정
- ② (1천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) 공모, 민간 및 부처 추천, 민간 투자(딥테크 팀스)를 통해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 선발
- ③ (5년간 2조원의 정책수단 투입) 민·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, 사업화, R&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 지원
  - \* (민간투자 유치) 민간의 투자 자금에 비례하도록 지원구조 설계  
(사업화) 장기간·고비용 필요한 신산업 특성을 감안 자금 지원(최대 3년, 최대 6억원)  
(R&D) 스타트업 보유 기술의 초격차 달성을 위해 과감한 기술개발 지원  
(후속 스케일업) 민간투자 대규모 유치 등 성과 우수기업에 스케일업 자금 지원
- ④ (부처협업) 10대 초격차 분야별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신산업과 관련된 R&D, 인력, 인·허가, 시설 등을 연계

## 2.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

□ 「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」 발표 [중기부, '22.11월]

- ① (전략 1)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벤처투자 활력 지원
  - (투자) 펀드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목표 연계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상향
  - (중간회수)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지원 및 M&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 완화 (現 20%)
- ② (전략 2)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
  - 벤처펀드 출자 목적의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 근거 및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활발한 조성 유도

### ③ (전략 3)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

- 해외VC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('23년까지 누적 8조원 이상),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

### ④ (전략 4) 투자 선진화를 위한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

- 초기기업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투·융자 복합제도 도입 및 펀드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 허용 등

## 3. 스마트농업 청년창업·벤처 육성

### □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천명 육성 [농식품부]

#### ① (임대 창업)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 확대

- (단기) 스마트팜 경영실습임대농장(3년, 개별, '22년 115개) 및 임대형 스마트팜(3년, 팀단위, '27년 15개) 확대
- (장기) 유희농지, 간척지\*에 조성, 장기 임대(최대 30년)  
\* 간척지 조성 여건,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하고 예비타당성 검토, 예산협의 등 거쳐 2개소 조성 추진 검토(각 100ha 규모, '24~)

#### ② (교육·자금)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\* 및 창업 자금지원\*\* 확대

- \* 5개 전문과정 운영 및 단기 모듈식 교육과정 마련 등으로 매년 약 500명 교육('23~)
- \*\*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(최대 30억원)·후계농자금(3억원) 등 지원조건 개선

### □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[농식품부]

#### ① (기술개발) 8대 핵심기술\*을 조속히 개발하여 상용화(~'27)

- \* 8대 핵심기술(안) : ①AI예측, ②AI온실관리, ③온실용로봇, ④축산IoT, ⑤AI축사 관리, ⑥변량관수·관비기술(VRT), ⑦자율주행, ⑧노지수확로봇 등
- \*\* (온실·축산) 3,867억원('21~'27), (노지) 285억원('22: 122, '23: 163) 등 연구 투자

#### ② (투자지원) 농식품 스마트농업·벤처 모태펀드('23: 300억원 신규),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(2.8억원/기업) 등 지원 강화

#### ③ (내수시장) 新기술·서비스 현장 실증('23: 누적46개) 및 보급\* 확대

- \* 화훼, 딸기 등 주산지 기존온실을 스마트 온실로 전환, 스마트축산 장비·서비스 보급 및 노지(곡물·채소·과일) 시범단지 조성(기추진 3, '23신규 3개소) 등 추진

#### ④ (수출지원) 전시·홍보용 해외 데모온실 확대('23: 3개), 스마트팜 ODA 연계\* 국제협력 강화 및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

- \* (진행중) 5개국(6건) '23부터 순차완료 예정(~'26)

## 4. 중소기업 수출·판로 지원 촉진

### □ 「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」 마련 [중기부, '22.12월]

- ① (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)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이 기존 시장 외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 
\* 수출 국가다변화, 내수 중소기업 수출기업으로의 전환, 수출유니콘 육성 등 추진
- ② (특화분야 발굴·육성)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온라인·소비재·서비스 분야와 최근 수출 호조세인 방산·원전 관련 수출 확대
- ③ (해외진출 촉진) 수출 외에 투자유치, 기술협력 등 해외진출 지원
- ④ (국내·외 거점 확충) <sup>(국내)</sup>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와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, <sup>(해외)</sup> 수출BI 기능 확대 및 현지 인적 네트워크 확충

### □ 연중 릴레이 소비축진을 통한 중·소상공인 매출 회복 [중기부, '22.12월]

- ① (대규모 소비축제) 중소기업·소상공인 판로개척과 소비촉진 견인을 위해 크리스마스마켓, 동행축제를 연중 릴레이로 추진

| 구 분     | 행사기간       | 주요 추진내용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크리스마스마켓 | '22.12월    | ▶ 온·오프라인 판촉행사, 여성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       |
| 동행축제    | '23.5월, 9월 | ▶ 가정의 달(5월), 추석 전 기업·정부·지자체 등과 판촉행사 진행 |

- ② (지역·해외판촉) 소비축제를 지역축제\*와 연계하고, 내년 상반기 글로벌 수출상담회\*\* 등 해외 중소기업 제품 판촉 본격 추진

\* 금년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시 “부산 해운대 빛축제” 등 전국 지역축제와 연계

\*\* '22.9월 뉴욕행사 성과: 51백만불 수출상담, 1만불 현장판매 및 1백만불 현장 수출계약 체결

## 5.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

### □ 50조원 규모 「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」 마련 [금융위, '22.연내]

- ① (일시적 경영애로 대응: 12조원) 3高(高금리·高물가·高환율)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 공급

| 애로  | 주요 내용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리  | ▶ 창업초기기업 대상 우대보증 금리대출, 변동금리 전환가능 고정금리 특례대출 등 |
| 원자재 | ▶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기업,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 특례대출 등        |
| 환율  | ▶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(기은)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|

② (취약기업 정상화: 7.4조원)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

\*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,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, 신속금융지원 확대·상시화,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

③ (미래성장 지원: 30.7조원) 혁신산업(디지털·초격차 기술 등) 육성과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

\* 벤처대출 시범도입, 창업기업 우대보증,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·재무 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,

\*\* 신산업 진출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·특례자금 공급

## 6. 기업·산업현장의 인력난 완화

### □ '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[고용부, '22.10월~]

○ (현행) '22년 6.9만명\* → (개선) '23년 11만명

\* 그간 외국인력(E-9) 도입규모(천명): ('16) 58 → ('17~'20) 56 → ('21) 52 → ('22) 69

○ (조치계획) 10.25.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→ 11~12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 → '23년초부터 필요인력 신속 입국 예정

### □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[고용부, '22.연내]

○ (현행) '22.12.31.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→ (개선)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제 적용 2년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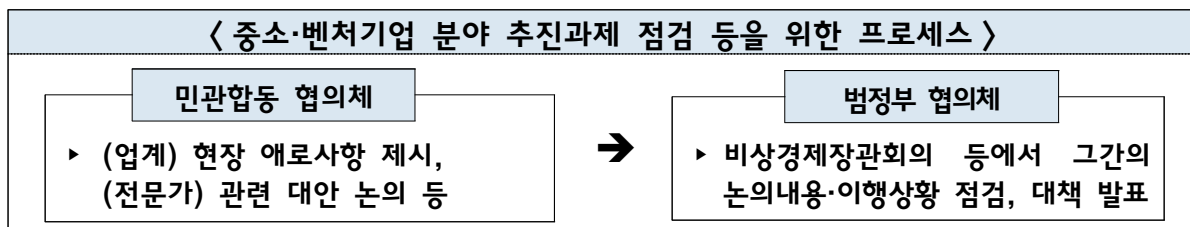
○ (조치계획)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

## 3 추진계획

□ 연내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발표·이행할 계획

□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·운영

\* 전문가, 업계, 정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과제 이행점검, 관련 대책 등 논의



## [4] 관광 · 콘텐츠

### 1 현황

#### 1. 관광

- 관광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심각한 침체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2021년 이후 점차 회복되는 추세
  - 국제관광 단계적 정상화에 따라 전 세계적인 경쟁 국면 돌입
- 최근 K-컬처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면서 K컬처가 한국 방문의 주요 이유\*로 부상하는 등 방한관광 관심도 증가 추세
  - \* 방한 이유 1순위 문화체험·즐길거리 30% (K-pop, 한류 관련 포함)  
(잠재방한여행자조사 2021/한국관광공사)
- 침체된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관광업계가 요구하는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제, 세제 등 제도 개선 필요

#### 2. 콘텐츠

- K-콘텐츠산업 수출은 119억불('20년)로 가전제품(73억불), 디스플레이 패널(41억불)을 추월하여 대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
  - 연평균('16~'20) 수출 증가율은 18.7%로, 국내 전체산업(0.9%) 대비 21배 빠르게 성장
  -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관련 소비재 수출 1.8억 달러 증가 견인('22, 한국수출입은행)
  - K-콘텐츠의 활약으로 '21 韓 글로벌 소프트파워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11위(英 브랜드파이낸스), 외국인의 81%가 한국 이미지 긍정 평가
- BTS, 오징어게임 등 K-콘텐츠 경쟁력 입증에도 불구하고, 콘텐츠 기업 영세성 및 자금 부족등 으로 IP 해외유출 심화\*
  - \* 넷플릭스는 '오징어게임'에 250억원 투자, IP 이전으로 1조원 수익 예상(블룸버그)
  - K-콘텐츠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필요

## 1. 관광

□ 「K-컬처와 융합한 K-관광, 가고싶은 나라 한국」 신속 추진  
[문체부, '22.12월 발표 예정]

- ① (2023 한국 방문의 해)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추진, 문화 예술·스포츠·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, 해외 마케팅 등 K-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 확산
- ② (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홍보) 동남아·중국·구주·미주 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 추진
- ③ (관광기업 육성펀드) '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
- ④ (K-컬처 연수비자) 한류 등 K-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 확대
- ⑤ (규제 완화)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 추진
  - \* ▲ 호텔별 2인이었던 E-7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를 5인까지 확대
  - ▲ H-2 비자 활용한 호텔업 취업 범위 확대 시행(1~3성급 ⇒ 1~5성급 확대)
- ⑥ (전자여행허가제 개선)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,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\* 등 이용자 서비스 개선
  - \* 단체여행객 동일·반복 입력사항(국적, 입국목적, 여행사명 등) 자동 업로드 기능 등 입력 편의 제고
- ⑦ (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)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'25년까지 연장 추진

## 2. 콘텐츠

□ 「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, K-콘텐츠」 신속 추진  
[문체부, '23.2월 발표 예정]

- ① (정책금융 확대) 모태펀드·완성보증·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 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  
\* '23년 총 8,466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예정
- ② (OTT 규제개혁)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-콘텐츠 유통 활성화 추진
- ③ (콘텐츠 인력 양성)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, 장르별 특화 인재, 현장 밀착형 인재 등 콘텐츠 인력 3년간 1만 명 양성
- ④ (연관산업 연계 해외진출) 연관산업(식품·화장품·패션 등) 해외 홍보관 운영, 박람회 개최, 홍보마케팅 지원 등 K-콘텐츠 연계 홍보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

## 3 추진계획

### 1. 관광

- 2023 한국 방문의 해 TF 운영 및 사업 추진('22.12월~)
- 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동남아('22.11월), 중국(12월~) 내 홍보 추진
-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('22년~'27년)

[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예산 ]

(단위 : 억원)

| 구분             | '22년 | '23년  | '24년  | '25년  | '26년  | '27년 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□ 기금+민간결성액(누적) | 643  | 1,073 | 1,570 | 3,000 | 4,000 | 5,000 |

- K-컬처 연수비자 신설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('22.12월~)
-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확대 위해 E7 비자 발급 지침 개정  
(‘22.11월/법무부) 및 H2 비자 관련 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개정(‘22.12월/법무부)
- 전자여행허가제 관련, 단체심사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등  
시스템 개선 협의 추진('22.11월~/법무부)
-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연장 위한 ‘조세특례  
제한법’ 개정('22.11월~) 및 ‘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 
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’ 개정 추진(법 개정 이후)
- 관광산업 복원과 확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, 운영
 

---

  - (구성) 문체부, 관계부처(법무부, 국토부, 고용부 등), 관광업계, 학계 등
  - (운영방안) 국가관광전략회의 산하의 국장급 민관협의체(문체부 2차관 주재)로  
운영(주요 논의 과제에 따라 민간참석자는 변동)
  - (일정) 국가관광전략회의 겸 1회차 회의 개최(12월)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

---

## 2. 콘텐츠

- 펀드 조성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정책 시행('23.2월~)

[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주요 내용 ]

(단위 : 억원)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| '22년 예산 | '23년 정부안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태펀드 문화계정<br>(위풍당당 펀드) | 1,388   | 2,200    | · K-콘텐츠 IP 펀드 등 6종,<br>총 4,666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|
| 완성보증                   | 300     | 200      | · 총 2,200억원 규모의 용자에<br>대한 보증 공급            |
| 이차보전                   | 20      | 40       | · 총 1,600억원 규모 대출의<br>이자비용(2.5%) 지원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| 1,708   | 2,440    | 총 8,466억원 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OI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위한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 
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('23.3월)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추진('23.5월)

- 콘텐츠 인력양성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, 게임인재원 운영 지속 및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개원 준비('23.상반기~)
- K-컬처 연계 연관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해 해외 홍보관 개관('22.12월)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속('22.11월~)
- 콘텐츠 분야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정책 지원방안 발굴('22.12월~)

- 
- **(구성)** 문체부, 콘텐츠업계, 학계 등 (필요시 관계부처 포함)
  - **(운영방안)**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(문체부 1차관 주재)와 연계하여 국장급 민관협의체로 운영
  - **(일정)**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전 의견수렴을 위해 1회차 회의('22.12월)를 추진하고,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
- 

### 3. 세부계획

-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신속 이행
-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·업계, 관계부처 등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
-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광·콘텐츠분야 점검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 추진

## [5] 디지털 · 바이오 · 우주

### 1 현황

#### □ 디지털 기술, 기술패권의 최전선 → 핵심역량 및 고급인재 확보 시급

- 우리는 반도체, 스마트폰 등 디지털 HW 강국이면서, 세계 최초 5G('19), AI 국가전략 수립('20) 등 선제 대응하여 높은 평가

\* AI 준비지수(Oxford Insight) : 26위('19) → 7위('20) / 세계혁신지수(ICT 인프라, WIPO) : 1위('21)

- 그러나, AI·데이터 역량은 선도국 대비 격차\*가 여전한 가운데, 기업들의 디지털 인력난이 심화\*\*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할 숙제

\* AI 실질역량('22) / 기술수준('20) : 美 100 / 100 > 中 62 / 91.8 > 韓 38 / 87.4

\*\* 인재수요(~'26) 73.8만명, 취업률(약70%) 고려시 100만명+∞ 공급 필요(한국직업능력연구)

#### □ 팬데믹으로 바이오 산업 급속성장 → 디지털+바이오 새로운 활력

- 팬데믹은 바이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

\* 벤처투자 신규투자 업종 비중('21) : 1위 ICT서비스(31.6%), 2위 바이오/의료(21.8%)

- 최근 AI·로봇을 바이오와 접목해 기간·비용을 절감하는 시도 지속, 최고 수준인 우리의 바이오 제조역량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 충분

\*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과정에서도 AI를 통해 mRNA를 고속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큰 역할

#### □ 누리호·다누리로 우주 붐 조성 →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시점

- 독자 개발한 '누리호' 성공('22.6.21.), 최초 달 탐사 사업인 '다누리' 발사(8.5.)로 그간 축적된 우주개발 역량에 대한 관심·기대 증가

- '뉴스페이스'의 부상과 함께 우주 新시장 창출·선점 경쟁\*이 촉발, 공공 주도로 축적된 역량을 민간 주도 산업 창출로 확장할 필요

\* 우주 인터넷(SpaceX, Oneweb, 아마존), 우주관광(Virgin Galactic, Blue Origin, SpaceX) 등

## 1. 디지털

□ 「(가칭)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」 수립 [과기정통부, '22.12월 발표, 잠정]

- ① (초격차 확보)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와 AI로 과학·산업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'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' 추진

| 차세대 AI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자기지도학습,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<br>· 신뢰성 향상(설명가능, 편향성 완화) 등<br>※ 차세대 AI R&D('22~'26, 총 3,018억원) | · 10대 주요분야 난제해결 추진<br>* (예시) 농산물 신품종 개발기간 단축, 고성능 배터리 소재(전해질) 개발 등 |

- ② (반도체·클라우드 활성화) 국산 AI반도체를 고성능·저전력화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는 "K-클라우드 프로젝트"와 함께, 모바일 센서 일체형 AI반도체 개발도 추진

- ③ (민생현안)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상용화 수준의 AI 제품·서비스\*를 구독형 방식으로 지원

\* (예) 취약계층 AI 돌봄서비스, 소상공인 AI로봇·키오스크, 도서지역 학생 맞춤형 교육 등

- ④ (인프라 활용지원) 학교, 기업 등 민간이 초거대AI, 컴퓨팅 자원, 학습용 데이터 등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지원

\* (초거대AI) 대학·스타트업 등이 대기업이 개발한 초거대AI 모델을 API 방식으로 이용  
(컴퓨팅자원) AI집적단지 데이터센터, 슈퍼컴6호기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GPU 이용 지원  
(학습용데이터) 민간수요를 토대로 헬스케어, 교통·물류 등 데이터 구축·개방(AI허브)

□ 디지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추진

- ① (초·중학교) 정보시수를 확대\*하여, 학생 발달에 맞춰 체계적으로 AI·SW 및 빅데이터, 코딩교육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제공(교육부)

\* 【2022 개정 교육과정】 2배 확대 (初) 17시간 → 34시간 이상, (中) 34시간 → 68시간 이상

※ 【AI 선도학교】 ('22.) 1,095교 → ('27.) 2,200교, 정보교육 공간구축 및 운영 모델 다양화

<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 주요 내용 >

| 초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놀이·체험 중심의 프로그래밍 학습</li> <li>• 생활 데이터를 활용한 AI 원리 이해 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생활 중심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실습</li> <li>• AI·SW 등 이해·활용, 윤리·가치 인식</li> </ul> |

**② (고등학교) 디지털 분야 진로·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다양화\***  
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**AI 융합교육 중심고 확대**(교육부)

\* 【2022 개정 교육과정】 ‘정보’, ‘인공지능 기초’, ‘데이터과학’, ‘소프트웨어와 생활’ 등

※ 【AI 융합 중심고】 (‘22.) 57교 → (‘26.) 180교,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선택기회 확대

**③ (군장병) 5년간 군 장병에 대한 온라인을 통한 실습형 SW·AI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자는 현직자 멘토링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**(과기정통부)

- 군 내 디지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시범부대 지정 및 SW·AI 교육장\* 구축, 국방 AI 경진대회 개최(국방부)

\* ‘22년 6개소 (육군 6사단·5군단, 해군 7전단, 공군 7전대, 해병대사, 국통사)

**□ 「디지털 미디어·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」 수립** [과기정통부, '22.11월]

○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(①OTT, ②메타버스, ③크리에이터 미디어)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 조성

**① (OTT) 특화 국제행사 ‘(가칭) Global OTT Awards’ 기획·운영 추진** 등 국내 OTT 홍보·브랜드화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

**② (메타버스) ‘2030 부산월드엑스포’ 등을 통한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를 실증·상용화하고, R&D·인재 양성 추진**

**③ (크리에이터 미디어) 직업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**

**④ (산업혁신 기반) 3대 투자 물줄기(정부+산업계+투자혁신)를 확대하고, 초실감 가상 제작(버추얼 프로덕션) 확산·인재육성 강화**

## 2. 바이오 · 우주

### □ 「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」 수립 [과기정통부, '22.11월 발표 예정]

- ① (데이터 공유·활용)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축적·공유·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&D 지원  
\* '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(K-BDS)' 구축 추진, ~'26
- ② (핵심기반기술 확보)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  
\* 유전자 편집·제어·복원기술 고도화('23~'27), DNA 바코드 국가 화합물 은행구축 등('23~'27)
- ③ (新연구·新산업 창출) 디지털바이오 유망기술 집중육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  
※ 전자약, 바이오파운드리, 마이크로바이옴, 첨단신약 분야 등

### □ 「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」 추진 [과기정통부, '22.11월 발표 예정]

- ① (전략)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전략적 대응을 위한 「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」 마련('22.11)  
\*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&D, 인프라 구축, 산업적 활용, 생태계 조성 등을 아우르는 장기 관점의 종합적 정책방향 제시
- ② (인프라)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국내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“바이오파운드리” 구축·운영 추진  
\* '24-'28(5년간), 약 3,000억원 규모, 과기부 주관/산업부 참여 (예타 기획 중)
- ③ (생태계)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 생태계 조성 및 국내 산·학·연 역량 결집을 위해 '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' 운영('22.7~)  
※ 기업 20개, 대학 26개, 출연연 12개 등 총 5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
- ④ (협력)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의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'한·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' 개최('22.12) 및 주요 연구기관 간 협력 추진
- ⑤ (법·제도) 혁신성과 위험성을 동반하는 합성생물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촉진 및 투명성 관리 등을 위한 신규 법률 제정('23)  
\* (가칭) 「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입법 발의('23.上)

## □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

### ① (전송요구권) 본인 동의 시 안전관리 체계\*를 갖춘 제3자에게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자전송 요구권 도입

\* 데이터 활용 목적 등을 심사하여 데이터 활용기관 사전 허가, 보안체계 의무 부여, 위반 시 벌칙(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, 과태료(3천만원 이하) 등

\*\* (현행) ①본인 → ②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 발급받아 → ③제3자 전송  
(개선) (본인 동의) ①의료기관 → ②안전관리체계 갖춘 제3자 직접 전송

### ② (가명 정보 활용 확대) 가명 정보 활용 분야 중 하나인 '과학적 연구' 활성화를 위해, 현 지침 운영사항 법제화

\* (현행)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, 통계작성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나, 의료정보는 의료법, 생명윤리법 등 우선 적용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활용 가능 여부 모호, 연구 현장에서의 활용 미진  
(개선) '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'의 법제화로 법령간 상호 관계명확화, 현장예측가능성 제고

## □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

### ① (K-바이오백신편드) '22년 5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 지원

\* '23년 9월 운용사(2개社) 선정, 23년 초 결성 목표로 운용사 별 민간자금 모집 중(~12월)

### ② (바이오헬스 유망기술) 5.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(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完) 추진

\* 국가신약개발 2.2조 원('21~'30, 과기정통부·산업부·복지부),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 0.6조 원('21~'30, 과기정통부·복지부) 등 총 8개 사업 5.5조원

### ③ (감염병 핵심기술) '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사업'('20~'29)

총 6,240억 원,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(1,077억 원)\*등 연구개발 투자

\* mRNA 플랫폼 '22~'23, 210억 원, 항바이러스제 '23~'29, 464억 원, 신속범용 백신 '22~'26, 403억 원

## □ 우주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

### ① (산업육성) 정부 우주개발 R&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, '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'35년까지 전문인력 집중 양성

\* GDP비례 우주예산('21, Euroconsult) : (미) 0.23% (러) 0.24% (일) 0.08% (프) 0.15% **(한) 0.04%**

- 공공R&D성과(기술, 데이터 등)의 이전,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스타트업 100개 추가 육성

\* 우주분야 신규참여 기업('21년 우주산업실태조사) : ('14)24개 → ('17)15개 → ('20)5개

-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,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명 양성

\* 우주분야 인력('21년 우주산업실태조사) : ('14)6,336명 → ('17)9,138명 → ('20)8,969명

### ② (거버넌스) 우주 기술개발 집중 육성과 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형 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

## 3. 성장기반 조성

## □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추진 [과기정통부, '22.10월 既발표]

### < 12대 국가전략기술 >

◆ △공급망·통상, △신산업, △외교·안보 등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기술 도출

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<b>혁신선도</b> | 반도체·디스플레이 | 이차전지   | 차세대 원자력 | 첨단 모빌리티 |
| <b>미래도전</b> | 우주항공·해양   | 첨단바이오  | 사이버보안   | 수소      |
| <b>필수기반</b> | 인공지능      | 차세대 통신 | 첨단로봇·제조 | 양자      |

### ① (전략로드맵 수립)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,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 수립

※ **전략로드맵**(임무목표, 투자방향 등)-**부처별 추진전략**(R&D사업기획, 산업생태계·규제혁신 등) 연계

- ② (범부처 프로젝트 추진)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, 민관협업 기반 범부처 프로젝트 기획·추진(10개 내외)

\* 민간과 함께 임무목표 설정, 전문가 책임관리 및 면밀한 성과점검 등 임무지향성 강화

- ③ (제도적 기반 마련)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추진체계\* 구축,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 마련

\*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'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' 및 기술별 협의체 구성·운영

### 3

### 추진계획

-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
-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·업계, 관계부처 등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
-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·바이오·우주 분야 점검 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 추진

## IV. 세부 추진일정

| 정책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처 · 기관  | 추진 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<b>1. 주력산업</b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· 반도체 생태펀드 조성                    | 산업부      | ‘23.上    |
| ·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                | 국토부      | ‘22.12월  |
| · 반도체 팹리스 육성                     | 산업부·중기부  | 계속       |
| · 반도체 1조원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 | 기재부      | ‘22.12월  |
| · 반도체 등 주력산업 세제지원 확대             | 기재부      | ‘22.12월~ |
| · 핵심광물 확보방안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부      | ‘22.12   |
| · 「공급망 기본법」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   | 기재부      | 계속       |
| ·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수립·발표             | 산업부      | ‘22.11월  |
| ·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 | 계속       |
| · 조선업 금융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·산업부  | 계속       |
| · 한국형 원전 유럽 진출                   | 산업부      | 계속       |
| ·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                 | 산업부      | ‘22.12월  |
| · 방산 수출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      | ‘22.11월  |
| · 에너지 수요효율화 적극적 추진               | 산업부      | 계속       |
| <b>2. 해외건설</b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·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, 11월 첫 출정         | 국토부      | ‘22.11월  |
| · PPP, PM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추진       | 국토부      | ‘22.~    |
| ·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추진(원전, 방산, 정보통신 등) | 국토부      | ‘22.12월~ |
| ·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기한 180일로 연장     | 고용부      | ‘22.11월  |
| ·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          | 수은, 무보 등 | ‘22.11월~ |
| · 대부업법 개정 추진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| ‘23      |

| 정책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처 · 기관    | 추진 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<b>3. 중소·벤처기업</b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
| · 「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」 추진       | 중기부        | ‘22.11월  |
| · 「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」 발표         | 중기부        | ‘22.11월  |
| ·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천명 육성             | 농식품부       | ‘22.11월  |
| ·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             | 농식품부       | ‘22.11월  |
| · 「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」 마련               | 중기부        | ‘22.12월  |
| ·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을 통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매출 회복 | 중기부        | ‘22.12월  |
| · 50조원 규모 「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」 마련    | 금융위        | ‘22.연내   |
| · ‘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   | ‘22.10월~ |
| ·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    | 고용부        | ‘22.연내   |
| <b>4. 관광·콘텐츠</b>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
| · ‘한국방문의 해’ 계기 방한관광 조기회복 지원       | 문체부        | ‘22.12월~ |
| · 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홍보                 | 문체부        | ‘22.11월~ |
| ·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              | 문체부, 기재부   | ~’27년    |
| · K-컬처 연수비자(한류비자) 도입              | 법무부, 문체부   | ’23.上~   |
| ·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완화 추진           | 문체부, 법무부   | ’22.11월~ |
| ·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, 문체부   | ’22.11월~ |
| ·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2025년까지 연장     | 문체부, 기재부   | ’22.12월  |
| · 정책금융 확대로 콘텐츠기업 육성               | 문체부        | ’23.2월~  |
| ·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                 | 문체부        | ’23.3월   |
| · 콘텐츠 인력 3년간 1만명 양성               | 문체부        | ’23.上~   |
| · 콘텐츠 연관산업(화장품, 식품 등) 연계 해외진출 지원  | 문체부, 산업부 등 | ’22.11월~ |

| 정책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처 · 기관       | 추진 시기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5. 디지털·바이오·우주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
| · “(가칭)인공지능 초일류 전략”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2월 |
| · 의료 AI-SW 지원 등 구독형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4월  |
| · 고령층 돌봄 등 구독형 AI 제품·서비스 신규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4.12월 |
| · “(가칭)K-클라우드” 추진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3월  |
| · 초거대AI 모델 활용 지원(대학·연구소·중소벤처기업 등)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4월  |
| · AI 직접단지 데이터센터 완공 및 고성능 컴퓨팅자원 제공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9월  |
| ·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 개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6월  |
| ·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고시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| ‘22.12월 |
| · AI 선도학교·중심고 등 단위학교 디지털 교육역량 지원                  | 교육부<br>/과기정통부 | ‘22년~   |
| · 군장병 디지털 예비인력/AI 전문인력 육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/<br>국방부 | ‘22년~   |
| · “디지털 미디어·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” 수립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1월 |
| · 특화 국제행사 운영 등 OTT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년~   |
| · 메타버스 미디어 기술개발·실증 등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년~   |
| · 크리에이터 미디어 전문 창작자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년~   |
| ·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下~  |
| ·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1월 |
| ·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1월 |
| ·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·운영(‘24~‘28)<br>※ ‘22.4차(12월) 예타신청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2월 |
| · (가칭) 「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입법 발의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3.6월  |
| ·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개선(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)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| ‘22.10월 |
| · K-백신 바이오 펀드 1조원 조성(‘22~)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| ‘22.8월  |
| ·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2월 |
| ·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2월 |
| · 범부처/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 확정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.12월 |
| · 국가전략기술별 전략로드맵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기정통부         | ‘22년~   |